

의 속도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열화가 가장 이상적인 유통구조라고 생각된다.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늦은감은 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발맞추어 이와같은체제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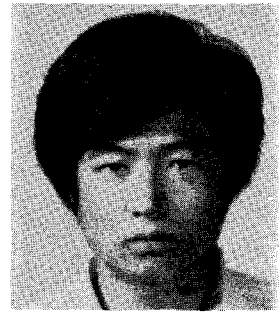
을 위한 초석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한가지 바랄 것은 올해는 농장에서 출하시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주시기를 전국 양계업자 여러분에게 부탁 드리는 바이다.

양계인 모두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 우리 모두가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한 해가

김 창 수  
(한협축산 영업부)



불안하기만 했던 한해가 ILT라는 질병이 적정수준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그런대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이제 새해를 맞아 이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가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모두의 의식구조부터 개선하자.

가격안정, 유통구조개선, 공동운명체로서의 협동 등 고질적인 우리업의 난제들은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것 보다는 훨씬 아래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것 같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하루 아침에 몇명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시일과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도박장에서 화투장을 쥐고 있는 기분으로 입추와 출하시기를 택하는 이런 불안한 생업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말인가. 이제는 아예 「우리업계는 안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안된다는 생각을 버

리고 지도층이나 일반 양축가나 모든 사람들이 꼭 이루어야 하고 꼭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진정한 농부, 목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탕주의를 지양하자.

언제부터인가 우리업계에도 한탕주의가 번지고 있다. 물론 가격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심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입출하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업이 아닌 생업으로 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진실로 양계업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직업의식을 갖는 사람, 뜨내기나 바람잡이가 아닌 사람들로써 정착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각자의 적정규모를 감안하여 무리하지 않는 경영으로 사료효율이나 질병 등 사양관리와의 투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해야지 무리한 경영으로 한탕을 꾸미다가 도산하여 이리저리 도피하는 일은 필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편견과 고집을 버리자.

날로 변해가는 것은 우리업계도 마찬가지다.

## ● 1983년에 바란다

새로운 질병, 새로운 사양기술, 새로운 약품 등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자기의 10년, 20년 경험이 최고라는 타성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하여 항상 귀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솔직한 대화, 이해 그리고 협동으로 살아가야지 혹시나 옆집이 알 세라 질병이 왔어도 쉬쉬하고 있다가 전 단지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작년같은 일은 없어야 하며 나혼자 잘 살기 위하여 냉동차로 운반해야하는 백신을 트럭으로 삼복더위 속을 달렸다는 이런 후문은 결코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생물을 다루는 우리업에서는 적당한 타협이란 편견과 고

집일 수 밖에 없다. 모든 편이 다 그렇지만 특히 질병문제에 있어서 설마하고 적당한 소독으로 안심할 수가 없다. 완전한 방역, 철저한 소독만이 필요한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 격안정 등 제반사항을 다루어야하고 한탕이라는 기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양하여 생업으로서의 직업공지를 가지고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업체간의 솔직한 대화를 유도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협동하는 우리업계를 만들어 보자.

새해 아침에

### 이웃의 따뜻한 손 마주잡고 이해하며 양보하는 협동 양계인

이 태 섭

(본회 안양분회장, 육계업)



작년한해는 속이 텅빈 결부자의 한해였다. 이것을 옛말에 외부내빈이라고 하던가?

겉보기는 산물의 시세폭락 없이 지나온 한해였으나 실은 전염성후두기관염이 주머니를 텅 비게하여 양계업은 모처럼 컸던 기대가 ILT로 산산조각이 났다.

그래서 83년에 바라는 소망은 더욱더 간절한 것인지?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 또 해야할 일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급하면 체하겠기에 차근 차근 몇가지 소망을 물어본다.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82년에는 돼지의 뒷꼬리 잡고 따라가면서 나 도요 하고 외친것도 큰 힘이 되었기에 올해는 좀 더 나아가 높은 담위에 날아 올라서 돼를치

면서 긴목을 뽑아 목청을 높혀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숫탔과 같이 제일 높은자리에서 돼를치는 일등하는 어린이를 만들자.

생산조절이 안되는 것인지?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는 하지만 웬일인지 잘 안된다. 「양계인」이라는 한가족이면서도 부화장과 사육장은 생산조절이라는 요리를 잘못하여 쓰고, 달고, 맵고, 때로는 짜고, 시고, 뽕고해서 요리를 망치는 예가 많다. 새해에는 공동요리강습회라도 열어서 요리를 잘 만들어서 소화를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